



사람 사람마다 이 말씀 들어 보시오.

이 말씀 아니면 사람이지만 사람 아니니

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사람

이 말씀 잊지 말고 배우고야 말 것입니다.

오륜을

⇒ 사람마다 듣고 배워야 할 오륜의 중요성

아버님 날 나오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,

부모님 아니시면 내 몸이 없었습니다.

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처럼 끝이 없습니다. 부자유친

부모의 은덕, 효

⇒ 하늘같이 끝없는 부모의 은혜

종과 상전을 뉘라서 만들었던가.

신하 임금

별과 개미들이 이 뜻을 먼저 아는구나.

위계 질서를 가지고 군집 생활을 하는 예

한 마음에 두 뜻 없도록 속이지나 마십시오.

충성

⇒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신하의 자세(충성심)

지아비 발 갈러 간 데 밥 광주리 이고 가서,

남편

밥상을 들어 올리되 눈썹 높이 에 맞춥니다. 거안제미

→ 공경하게 모심

친하고도 고마우신 분이니 손넉을 대하는 것과 다르실까.

극진히 접대해야 할 대상

⇒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내의 마음

형님 자신 젓을 내가 따라 먹습니다.

아아. 아우야 너는 어머님의 사랑이로다.

형제간에 불화하면 개돼지라 하리라.

짐승, 대유

⇒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의 우애

늙은이는 부모 같고, 어른은 형 같으니

같은데 공경치 않으면 어디가 다를까



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말 것이니라

⇒ 늙은이와 어른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

< 해 석 >

사람 사람마다 이 말을 들으시오.

이 말이 아니면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니

이 말을 잊지 말고 배우고야 말 것이다 < 1수 >

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길렀으니

부모님 아니면 내 몸이 없었을 것이다.

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끝이 없을 것이다. < 2수 >

종과 주인의 관계를 누가 만드셨나?

별과 개미들이 이 뜻을 먼저 아니

한 마음에 두 뜻 두지 말고 속이지 말아라 < 3수 >

남편이 밭 갈러 간 데 밥고리 이고가

밥상을 들어 눈썹에 맞춥니다.

친하고 고마우신 것이 손님과 드르겠는가? < 4수 >

형님이 잡순 젖을 나도 따라 먹었습니다.

아, 저 아우야 어머니가 널 사랑하신다

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짐승과 어찌 다르겠는가? < 5수 >

늙은 사람은 부모 같고, 어른은 형 같으니

같은데 공경치 않으면 짐승과 어디 다르겠는가

나이가 많으면 공손히 모실 것이다. < 6수 >

갈 래 : 평시조, 연시조

성 격 : 교훈적, 유교적

주 제 : 인간이 지켜야할 도리로서의 오륜

특 징 : 서사, 본사의 2단 구성. 본사는 병렬적 구성

해 설

이 시는 유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여 오륜에 해당하는 덕목을 교훈적으로 제시하는 연시조 작품이다. 1수는 오륜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하며 앞으로 제시할 내용을 배울 것을 강조하는 서사에 해당하며, 2~6수는 오륜에 제시된 덕목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다. 2수는 '부자유친', 3수는 '군신유의', 4수는 '부부유별', 5수는 형제간의 우애, 6수는 장유유서를 강조한다. 오륜 중 '붕우유신'에 해당하는 내용은 따로 다루지 않고 있다. 대구와 비유, 고사의 인용과 설의 등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유교적 교훈을 문학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. (2013 EBS 인터넷수능 운문문학 해설 인용)